6·13 지방선거 D-데이

metro 경제

12일 Market Index
코스피 2468.83 (-1.32)
코스닥 875.04 (-1.51)
금리(국고채 3년) 2.21 (-0.01)
환율(원·달러) 1077.20 (+2.00)

구독료: 월 15,000원 /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(02)721-9841 metroseoul.co.kr 2018년 6월 13일 수요일

65년 증오 지운 '세기의 악수'

▲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북미정상회담 개최

북한과 미국 정상이 65년만에 비핵화 합의문에 서명했다. 북한은 한반도의 '완전한 비핵화'를 약속했다.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키로 했다.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. 두 정상은 이날 단독회담, 확대회담, 업무오찬 등을 하며 140분간 함께 했다.

〈관련기사 2·3·4·6·8·9·15면〉

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사인한 뒤 "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"며 "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"이라고 소감을 밝혔다. 또 김 위원장은 워싱턴을,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각각 방문해 양국간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"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"면서 "(나 역시)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"이라고 말했다.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키로했다. 다만,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.

/김승호 기자 bada@metroseoul.co.kr